

특집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II)

코로나 19의 생명정치

안전장치와 규율의 작동으로 바라본 한국의 코로나 19 '정치-역학' 모델과
기술의 사용*

The Biopolitics of COVID-19:
Understanding South Korea's Approach to COVID-19 as a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through the Exercise of Apparatuses of
Security and Discipline

박위준**

본 논문은 코로나 19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으로 분석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면적 봉쇄나 국경 폐쇄와 같은 공간적인 강제 조치를 통해 코로나 19에 대응한 데 반해, 한국은 어떠한 형태의 광범위한 공간적 폐쇄 조치 없이 현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외적인 방역 모델을 감압적인 명령 보다는 '순환의 문제'에 집중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국지적으로 규율적 격리와 치료의 방식을 덧붙인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로 해석한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모델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술들이 공통적으로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이해는 이 '정치-역학' 모델의 개별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해석과 달리 대규모 전염병 관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실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주요어: 안전장치, 규율, 순환의 문제, 생명정치, 코로나 19, 기술

* 본 논문의 초고를 검토하고 유익한 논평을 해준 Nick Lally, 이종희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켄터키 대학교 지리학과(weejun.park@uky.edu).

1. 서론

코로나 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은 공간적인 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많은 정부가 국경을 신속하게 닫아 걸었고 필수적이지 않은 이동을 제한했다. 각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의 위기 상황이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에 따라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봉쇄와 차단은 가장 널리 채택된 전략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우한과 후베이성을 봉쇄했으며,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그들의 국경을 닫아 걸었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유럽 국가들도 국내 이동을 금지하고 봉쇄 또는 락다운(lockdown) 국경을 막음으로써 유럽 연합은 사상 초유의 공간적 분열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이러한 전략을 채택했다.

이와 달리 한국은 봉쇄나 국경을 전면적으로 폐쇄하는 ‘금지하고 막는’ 조치 없이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조치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yu et al., 2020을 볼 것). 여전히 간헐적인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국은 확진자의 폭증을 겪었던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전면적 봉쇄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곡선을 평평하게’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의 일상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필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외출하는 것에 어떠한 강제적 제한이 가해진 적이 없다. 여전히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식당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대중교통을 사용해서 출퇴근할 수 있으며, 먼 거리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필수적인 목적 외의 외출이 허용되지 않고, 전면적인 재택근무와 가족 간의 물리적 단절을 겪은 많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사회적, 공간적 측면에서 일상 생활의 큰 변화 없이 코로나 19를 관리하고 있다. 즉, 한국은 “긴급 상황(state of emergency)”(Agamben, 2005: 2) 또는 “예외 사회(society of exceptions)”(Diken and Carsten, 2005: 4) 없이 현 상황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 특이하면서도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연구자들은 다양

한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곤 한다. 즉, 한국은 다양한 기술의 효과를 통해서 3T(trace, test, treat) 원칙¹⁾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반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공간적인 폐쇄 전략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바이러스의 접촉과 확산의 확률을 줄이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지리공간적 감시 빅데이터 기술은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에 대한 추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및 CCTV 영상 추적 기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Sonn and Lee, 2020; Kluth, 2020). 이와 더불어, 진단 키트, 드라이브 및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와 같은 의료 기술 역시 중요한 한국의 ‘혁신적 기술 사용’의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McCurry, 2020; Cho, 2020).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이 모델에서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해석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본 논문 역시 이 기술들이 한국식 방역 모델의 작동에서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일종의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 메커니즘 등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작동한다(Amoore, 2013, 2018; Ash, Kitchin and Leszczynski, 2018). 따라서, 이러한 접근법은 이 기술들이 착근되어 있으며 방역이라는 목적을 향해 작동케 하는 보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보다는 개별 기술과 그 직접적 효과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방역 모델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만을 제공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방역 모델은 개별적인 기술의 활용보다는 그 기술들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보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이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3T로 요약되는 이 전략은 대규모 전염병(특히 말라리아)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방역 방침으로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2년 입안하여 공식적으로는 당시 사무총장 마거릿 첸(Margaret Chan)이 제안한 것이다(WHO, 2012). 하지만 이 전략 역시 완전히 새로운 전략은 아니며, 이는 “19세기 공중 보건 전략의 핵심이었던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검역(quarantine), 격리(isolation)에 기초한 것”이다(Doberstyn, 2006).

다른 한편으로 이런 개별 기술들이 갖는 강제성, 위법성, 감시의 측면에 주목해서 한국식 방역 모델을 ‘감시 기술을 통한 빅 브라더 식의 권위적인 국가 권력의 증대 또는 부활’(Brennan, 2020; 기술의 활용과 국가 권력의 귀환에 대해서는 Amooore, 2013을 참고할 것), 개인 인권에 대한 위협(Amnesty International, 2020; Kluth, 2020) 또는 생명에 대한 인간 중심적 국가 권력의 폭력(한겨레, 2020) 등으로 환원시키는 것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분석이다.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Agamben(2020a, 2020b)도 현재의 대규모 전염병 상황을 빌미로 국가 권력이 초법적이고 무제한적인 확장을 통해 시민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Nancy(2020), Berg(2020)등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접근법은 바이러스가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사변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점에서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Park(2020)이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와 같은 접근법은 문화적인 고정관념을 부추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첨단 기술로 무장하고) 보다 덜 자유로운’ 또는 ‘집단주의적인’(Logan, 2020; Lucas, 2020)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자유롭고’, ‘(이런 통제적인 첨단 기술이 개인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숙하고 개인주의적인’ 서구의 국가들의 대립적인 구도는 쉽게 발견되는 문화적 이분법이다(예: Sonn, 2020; 김강기명, 2020; Brennan, 2020). 하지만 이러한 ‘환원적인 문화적 설명’(Park, 2020)은 사실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²⁾ 그 ‘자유로운’

2) 이와 같은 ‘보다 자유롭거나 성숙한’(김강기명, 2020) 서구 (또는 유럽) 국가 ‘가설’은 다음의 이유로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서구의 국가들은 코로나 19 상황 이전부터 이미 생체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에 기반하는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정치 권력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결합을 통해 경제적 행위자들과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 (Amooore, 2013; Ash, Kitchin and Leszczynski, 2018). 게다가,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생체정보기반 감시, 구금 시스템 및 알고리즘(Gilmore, 2007; Benjamin, 2019; Browne, 2015)도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해 오고 있다(이런 점에서 서구사회 또는 국가를 일괄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진단하는 것은 백인 또는 주류 사회의 틀에 들어 있는 인구 집단에 편중된 서구 사회 및 학계의 잘못된 인식을 답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운동과 그 배경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

서구에서 한순간에 시민들의 공간적 자유를 크게 제한한 것이 매우 보편적이었다는 점에서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러한 설명은 각국의 방역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실천적인 분석들을 제공해 주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 또 다른 오리엔탈리즘 또는 문화, 인종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할 가능성까지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어떤 기술들이 쓰였고 그것이 각각 어떠한 개별적 효과를 냈는지, 또는 국가 권력이 그 기술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본 논문은 ‘공간적 측면에서’ 한국의 방역 모델이 갖는 특수성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또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른 방역 모델을 작동시킨 기본 메커니즘이 전면적인 공간적 봉쇄나 차단과 같은 강압적이고도 전역적인 국가 권력의 작동이라면, 한국식 방역 모델을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위에서 살펴본 개별 기술적 접근이나 ‘권위주의적 국가의 귀환 가설’ 등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한국의 방역 모델이 생명정치의 작동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푸코가 다양한 작업[예: Foucault, 1973(2003), 1977(1995), 1978(1990), 2003, 2007, 2008]을 통해 근대 이전의 주권적 권력 작동과 다른 근대적 권력의 원리로 제시한 이 개념은 전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을 다루는 근대적 권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들을 제공해 준다. 또한, 각각의 기술들을 보다 넓은 의미에

여주는 오늘날의 구체적인 사례일 것이다. 둘째, Roberts(2019)가 지적했듯이 (그리고 푸코의 다양한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서구의 국가들은 대규모 전염병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개인 정보 및 통계 자료에 기반한 감시 체계를 오래전부터 구축 및 활용해 왔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독일, 미국, 영국 등은 중국, 일본과 함께 가장 많은 인구 수 대비 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다(South China Morning Post, 2019). 또한, 런던(68.40개, 6위), 애틀랜타(15.56개, 10위), 시카고(13.06개, 13위), 시드니(12.35개, 16위), 베를린(11.18개, 19위), 빈(7.38개, 24위)은 홍콩(6.71개, 26위), 방콕(5.16개, 31위), 서울(3.80개, 34위) 보다 훨씬 더 많은 감시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이다(도시 인구 1,000명 당 CCTV카메라의 숫자, Bischoff, 2019)

서 권력의 복잡한 작동에 위치시키는 분석틀을 제공해 주며, 이를 통해 위의 단순한 환원주의적 분석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의 방역 모델을 “인구의 안전”(Foucault, 2007: 64)을 위해 주로 “순환의 문제”(65)에 집중하는 안전장치와 이에 부가적으로 규율적인 격리의 방식(Foucault, 2007)을 덧붙이는 생명정치의 작동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이를 ‘정치-역학’ 모델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한국의 방역 모델은 강압적인 공간적 차단 대신 사물들(인간을 포함한)의 만남(또는 만나지 않음)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이를 적절히 유도하고 조장함으로써 작동한다(안전장치). 또한, 확진 사례나 확진자에 노출된 공간에는 개별적으로 접근한다(규율). 그리고 이 정치-역학 모델에서 접촉자 추적, 재난문자, 지도 서비스, 진단 키트의 대량 생산, 드라이브 및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와 같은 다양한 기술들은 감시나 강압적인 권력의 작동 보다는 순환과 규율적 격리의 방식 하에 일관되게 작동한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 19와 관련된 현 상황이 대단히 지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역학에 대한 히포크라테스나 존 스노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문제의 주인공이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이동과 확산은 현재 핵심이 되는 문제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공간적 이동 제한 및 국경의 폐쇄, 지리공간정보 기술의 활용, 물자의 동원 및 이동 등). 이런 점에서 푸코가 생명정치로서의 규율과 안전장치를 논할 때 공간의 문제, 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순환의 문제 등을 중요하게 제기한 것은 (특히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리학적 접근법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며 (Elden, 2007; Legg, 2005; 김동완 2013),³⁾ 따라서 본 논문은 푸코를 통해 한국식 방역 모델을 지리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 본 논문은 위기 상황과 관련된 푸코와 아감벤의 생명정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며,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통해서 아감벤의 논의를 비판

3) 그 외에 푸코와 지리학의 다양한 관계 및 논의에 대해서는 Philo(2005), Crampton and Elden(2007, 특히 1장)을 볼 것.

하도록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직접적으로 현 상황에 대한 논쟁에 참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는 주권 권력과 생명정치에 대한 그의 설명이 현재 많은 비판적 연구자나 분석가들이 주장하는 ‘권위적인 국가의 귀환’ 가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본 논문에서 한국식 방역 모델의 메커니즘으로 보는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조는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⁴⁾ Brennan(2020)이 지금의 대규모 전염병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조르지오 아감벤의 …… ‘벌거벗은 생명’ 이론과 미셸 푸코의 …… ‘사회적 돌봄’ 이론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과도 일맥상통한다. 본 논문은 이 두 개념을 비교하고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정치-방역 모델을 푸코식 생명정치로서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들을 제공한다.

2. 위기 상황에서의 생명정치: 푸코의 생명정치와 아감벤의 예외상태

아감벤은 서양의 정치적인 권력을 분석하고 그것이 갖는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성격을 비판한 바 있다(Agamben, 1998, 2005). 그에 따르면, 서구의 역사에서 정치적인 권력은 줄곧 주권 권력⁵⁾의 형태로서 억압적인 수단을 통해 바이오스[bios(살아 있는 생명)]과 조에[zoe(죽은 생명 또는 생물학적으로만 살아 있는 생명)]를 구분하는 생명정치를 추구해 왔다(Agamben, 1998). 예를 들어, 그리스 폴리스에서 시민의 범주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법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로서, 이들은 시민들의 공동체인 폴리스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감벤

4) 이 글에서 Brennan이 아감벤과 푸코를 대조시킨 것은 푸코의 ‘사회적 돌봄’이론이 아감벤의 권위적이고 생명에 관심이 없는 국가 권력 작동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맥락이다.

5) 아감벤이 말하는 주권 권력은 홉스의 리바이어던 개념에서 도출되는 사회계약적 개념이 아니라 칼 슈미트의 주권자에 가까운 개념으로, 규칙 바깥에 존재하는 ‘예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권력을 뜻한다.

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도는 서양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근대 이후의 생명정치는 보다 광범위하게 작동하여 사실상 모든 인간 생명을 “벌거벗은 생명(bare life)”(Agamben, 1998: 4)으로 만들면서 작동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주권적 권력의 생명에 대한 개입은 특히 오늘날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법적인 측면을 가지므로 스스로의 작동이 합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도록 예외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필요하게 된다. 즉, 예외적인 상황이 상시적인 상황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있었던 무제한적인 체포와 구금은 명백히 불법적 또는 초법적 절차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가적 비상상황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작동 시킴으로써 용인된다. 보다 가까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오랫동안 예외 상태 속에서 작동한 불법적이지만 동시에 합법적으로 용인된 권력 작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Lee, Jan and Wainwright, 2014). 즉,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오늘날의 주권 권력은 법(의 작동)을 중단시켜 버리지만 동시에 사법적인 질서에 기반한다(Amoore, 2013). 이것이 아감벤이 “예외 상태(state of exception)”(Agamben, 1998) 또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영속적 특징을 고려하여 “영속적인 예외상태”(Agamben, 2005: 87) 등으로 부르는 권력의 작동 방식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감벤은 상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수용소(camp)의 개념을 제안했으며(Agamben, 1998: 174), 이는 예외 상태가 벌거벗은 생명에 대해서 작동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오늘날 사실상 인간 생명 모두가 이러한 예외적이지만 규칙이 되어가는 곳에 살고 있다고(또는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만약 수용소(캠프)의 핵심이 예외 상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고, 벌거벗은 생명과 사법적인 지배의 구분이 흐려지는 이와 같은 공간이 계속 만들어 진다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사실상 이러한 수용소와 같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Agamben, 1998, 저자 번역).

따라서, 아감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올해 초에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이동 제한령과 각종 규제는 위기와 공공 안전의 미명하에 진행되는 국가 주권 권력에 의한 거대한 수용소의 건설에 불과했던 것이다(Agamben, 2020a). 이탈리아에 처음으로 락다운 명령이 발표된 지 며칠 뒤 아감벤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염병의 상황은 (특히 이전의 전염병들에 비하면) 실제 위기가 아니며, 이는 “통치에서 예외 상황을 정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경향”(Agamben, 2020a, 저자 번역) 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상황이 실제로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그는 이것이 실제 위기 상황인 것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탈리아 정부의 대응은 시민들을 예외 상태로 몰아넣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이탈리아인들이 ‘벌거벗은 생명’이 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Agamben, 2020b). 즉, 그는 주권 권력의 생명정치는 (9·11테러 이후의 ‘만들어진 위기 상황’과 달리)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방식으로만 작동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아감벤의 주장은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예를 들어, Berg(2020)는 이에 대해 “그[아감벤]가 낱아빠진 전문용어로 치장된 스스로의 도그마적 믿음을 주장하면서 정말로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억압이나 싸움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저자 번역)지 반문하였다. 또한, Sotiris(2020) 역시 아감벤의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억압과 감시와 같은 형태의 (단순한) 평행적 확장”(저자 번역)으로 환원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 본 논문은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국가 권력에 의한 억압과 강제의 확장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적에 동의한다. 그와 동시에 Sotiris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현 상황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 방식은 매우 복잡하며,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아감벤의 주권 권력에 기반한 생명정치 논의보다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이 대규모 전염병 상황에서 작동하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권력의 작동방식과 대응 전략을 탐색하는데 적절하다고 본다(Elden, 2007을 참고할 것).

아감벤의 생명정치 논의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푸코 역시 주권 권력을 법률이나 명령, 또는 “죽게 만들고 살게 내버려 두는(take life or let

live)”(Foucault, 2003: 241) 권력 작동에 기반한 직접적이고 억압적인 권력의 작동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주권 권력을 서구 권력의 지속적인 핵심으로 판단했던 아감벤과 달리, 푸코에게 주권 권력은 서구 사회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보다 복잡한 권력 작동의 일부분으로 축소된 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푸코에게 근대 권력의 작동이나 여기서의 국가의 역할 등은 아감벤의 것보다 더 복잡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코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권력을 갖지 못하는 시민 사회에 대해 주권적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의 소유자로서의 국가라는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푸코·트롬바도리, 2010: 156(일부는 Foucault and Trombadori, 1991: 164를 저자가 번역해 보충함)).

우리는 오늘날 국가에 대한 사랑이나 혐오가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 국가 문제에 대한 과대평가는 두 가지 형태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즉각적이고 비극적인 형태, 즉, 우리 앞에 냉혹한 괴물이 있다는 표현이 그 하나입니다(Foucault, 2007: 107).

그리고,

박탈(deduction)(주권적 권력의 작동)은 더 이상 주요한 권력의 형태가 아니며, 권력에 복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선동, 강화, 통제, 감시, 최적화의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것의 한 부분일 뿐이다. 따라서, 권력은 힘을 방해하고, 굴복시키거나 파괴하기 보다는 그 힘을 발생시키고, 증대시키며,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작동한다(Foucault, 1978(1990): 136, 저자 번역).

푸코에 따르면, 이와 같이 ‘살게 만들고 죽게 내버려 두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Foucault, 2003: 241)은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Lemke, 2011; Foucault,

2003, 2007). 첫째, 이는 규율의 형태로 작동하며, “인간 신체에 대한 해부정치”(Foucault, 1980: 139)로서, “감시와 교정의 메커니즘”(Foucault, 2007: 5)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는 “개별적인 신체에 대한 규율을 실행하며, 인구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통제”(Foucault, 2007)를 가한다. 둘째, 이는 전체적인 정규성(normality)을 만들고, “안전의 기술”(Foucault, 2003: 239)로서 인구의 (생물학적) 흐름을 관리하는 기예(arts)인 “안전장치”(Foucault, 2007: 57)로 작동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안전과 안녕을 목표로 한다(Foucault, 2007; Lemke, 2011: 39).

이 두 가지 형태의 권력 작동은 항상 뒤섞여서 푸코가 이야기하는 근대적 생명권력을 구성한다(Lemke, 2011; 양창렬, 2006; 임동근, 2008). 즉, 푸코에게 근대 권력이 이전의 권력 형태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종으로서의 인간 생명 존재에 개입하는 권력이 등장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부정적’일 뿐 아니라 ‘긍정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용어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감벤의 생명정치는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과 상당히 다른 것으로 봄이 바람직하다(Lemke, 2011; 윤재왕, 2016도 참고할 것). 다시 말해, 푸코에게 인간 생명에 대해서 작동하는 근대 권력은 아감벤의 그것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갖는 권력의 조합물로 이해된다. 이런 맥락에서 Lemke(2005, 2011) 등이 각각 아감벤의 주권 권력과 그것이 갖는 법적 측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아감벤의 단순하고 일방향적 권력 작동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정치는 인구의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까? 푸코는 그의 유명한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1977~1978년)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권력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Foucault, 2007: 주로 2강과 3강). 먼저 그는 안전장치가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나 식량 부족과 같은 광범위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했다.

전염병에 대해서 푸코는 안전장치가 전염병 그 자체를 막으려 하기보다 그와 관련된 “현실적 요소”(Foucault, 2007: 87)들을 조절해서 전염병을 최종

적으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푸코는 안전장치가 천연두라는 광범위한 전염병을 “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단절이나 불연속성 없이 총체적으로, 요컨대 인구로 고려”(Foucault, 2007: 62; 푸코, 2011: 99 번역)함으로써 다룬다고 보았으며, 이는 특정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이전의 (소규모) 유행병에 대응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즉, 전파력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을 가두어 둠으로써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안전장치는 질병에 대한 정상화된(normalized)분포를 얻기 위해서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분포와 관련된 다른 주변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해당 분포를 ‘정상적인 곡선’으로 되돌려 해당 질병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식량 부족 사태에 대해서도 이 메커니즘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변동 [식량 가격의 변동] 그 자체에 접속하고 현실의 다른 요소들과 일련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러한 현상들을 조금씩 상쇄하고, 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제한해서 결국 소멸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푸코, 2011: 69(일부는 Foucault, 2007: 37를 저자가 번역해 보충함)).

푸코는 이처럼 ‘비정상적’ 분포의 정상화에서 안전장치는 “순환의 문제”(Foucault, 2007: 64)에 보다 집중하는 기예 또는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순환은 “이동, 교환, 접촉, 확산 형식, 분배 형식”(92)을 포함하는 개념 또는 “일련의 분석과 특수한 배치”(69)를 뜻한다. 즉, 안전장치는 “사물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좋은 순환과 나쁜 순환을 가려내는”(65)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이는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주권 권력과 달리 “인구의 안전”(Foucault, 2007)을 위해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푸코는 이와 같이 복잡하지만 새로운 권력의 형태를 통치(성)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저는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매우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권력의 작동을 가능

하게 해주는 제도, 절차, 분석, 고찰, 계산, 전술(략)의 총체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구를 그 대상으로 하며, 정치 경제학을 지식의 주된 형태로 하며, 안전장치를 그것의 필수적인 기술적 기구로 삼습니다[푸코, 2011: 163(일부는 Foucault, 2007: 108를 저자가 번역해 보충함)].⁶⁾

하지만, 푸코가 최종적으로는 ‘통치(성)’⁷⁾라고 불렀던 이 새로운 권력 모델

-
- 6) 사실 푸코는 이 부분에서 통치성을 두 가지 추가적인 의미로도 함께 정의한다. 그 개념의 복잡성만큼이나 요약하기 쉽지 않으므로 원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권력 유형, 한편으로 통치에 특유한 일련의 장치를 발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련의 지식을 발전시킨 이 권력 유형을 서구 전역에서 꽤 오랫동안 주권이나 규율 같은 다른 권력 유형보다 우위로 유도해 간 경향과 힘의 선(line of force)을 저는 ‘통치성’으로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세의 사법국가가 15~16세기에 행정국가로 변하고 차츰차츰 ‘통치화’ 되는 절차, 혹은 그 절차의 결과를 ‘통치성’이라는 말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Foucault, 2007: 144, 푸코, 2011: 163 번역).
- 7) 이 지점에서 ‘통치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푸코는 《안전, 영토, 인구》의 후반부 강의와 이후의 논의들을 통해서 통치 이성으로서의 근대적 권력의 거시적 작동(자유주의와 같은)을 자기 통치로서 개인과 다양한 사회의 영역에 내면화하는 미시적 정치의 영역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이 오늘날 ‘품행에 대한 지도(conduct of conduct)’로서의 통치성 연구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Jessop(2011)이 주장했듯이, 이는 이론적으로는 구조주의에 대한 반감, 역사, 사회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에 대한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영미권 푸코 연구자들의 특정한 독해 방식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푸코의 후기 저작에서 나타나는 “통치의 기예”(Jessop, 2011: 57),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에 대한 논의가 종종 간과되곤 한다. 하지만, Legg (2005)와 Findlay(2003)등이 제안하듯이 푸코의 통치성 연구는 다양한 스케일과 분석적 수준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푸코의 논의를 빌릴 때 미시적 권력과 거시적 권력의 연결, 또는 “영미권 푸코 효과”(Jessop, 2011: 56)를 주로 다루지는 않는다. 또한, 이는 바이러스의 통제와 관련해서 자유(또는 부자유)를 개인에게 내재화시키는 통치성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므로, 별도로 다루어져야 할 연구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통치성의 개념이 개인의 자유와 연결되어 자기 통치, 통치 이성의 내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한 심사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념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통치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간 생명, 관련된 주변의 사물과 환경을 조절하는 기예, 실천의 측면

에서 안전장치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푸코는 이것을 “규율 사회에 의한 주권 사회의 대체, 그리고 통치의 …… 사회안전장치의 작동에 의한 규율 사회의 대체”(Foucault, 2007: 107)로 보아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삼각형”(Foucault, 2007)이며, 이 삼각형 사이에서 유연하게 작동하는 권력의 형태이다(Elden, 2007). 이런 점에서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규율에 대한 푸코의 언급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1977~1978년의 강의에서 이에 대해 비교적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대규모 전염병의 통제에 적용되는 규율 메커니즘의 기본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물론 무엇보다도 개별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전염을 막는 것입니다(Foucault, 2007: 90, 저자 번역).

즉, 전염병의 통제에 대해 푸코가 말한 규율의 작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료적 조치로서, 개별 환자에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동시에(어떤 의미에서의 감시), 해당 환자를 전염병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규율적 시설(대표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즉, 구금)시킴으로써 전염병의 상황을 다루는 방식을 택한다. 해당 강의에서 대규모 전염병은 안전장치의 설명을 위한 사례인 만큼, 규율의 작동은 위의 설명으로 그친다. 하지만, 이전에 규율, 특히 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근대 규율적 권력의 등장에 대한 그의 설명(Foucault, 1973(2003), 1977(1995))과 해당 강의에서 있었던 규율

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안전장치, 그리고 생명정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Foucault, 2003을 참고할 것). 이를 통해 인간을 포함한 사물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움직이고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자 하는 자유를 억제하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그 특성을 살리도록 유도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근대적인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인한다. 즉, 이는 안전장치에 내재된 중농주의적 접근 또는 자유주의적 접근(Foucault, 2007)을 의미한다.

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를 부연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규율은 (안전장치와 달리) 첫째, “특정 공간을 분리해 내고”, 둘째, 규제를 통해서 그 분리된 공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어두며, 셋째, 허용과 금지를 통해서 해야 할 것을 지정해 준다(Foucault, 2007: 67~69, Foucault, 1973(2003), 1977(1995)도 참고할 것). 다시 말해서, 대규모 전염병에 대해서 규율은 환자를 격리시키고 가두어두며,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해야 할 것을 지정하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위의 두 가지 메커니즘, 즉, 안전장치와 규율의 방식에 따라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방역 모델은 안전장치를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대전략으로 채택하고, 그에 부가적으로 규율의 방식을 국지적인 전술로 덧붙인 생명정치의 작동이라는 것이다. 이 모델은 전역적인 인구 및 공간의 경향을 파악하고 인구와 사물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지식과 정보를 수집, 전파하고 동시에 검사 숫자를 대폭 늘리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여기에 규율적 메커니즘하에서 개별 확진자에 대한 감시와 격리를 시행하고 나아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국지적으로 방역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권력의 작동이 동반된다는 의미에서 이는 단순한 방역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치-역학’모델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이러한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의 코로나 19 관련 상황을 시간 순으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한다.

3. 한국에서의 코로나 19: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를 가진 국가’에서 ‘평평해진 곡선’으로

지난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⁸⁾는 한국의 첫 코로나 19 확진 사례를 보고했

8) 이하 질문. 단, 출처를 밝히는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다. 이후 중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확진자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으며, 일본은 이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으로 격리하여 치료하고 있다고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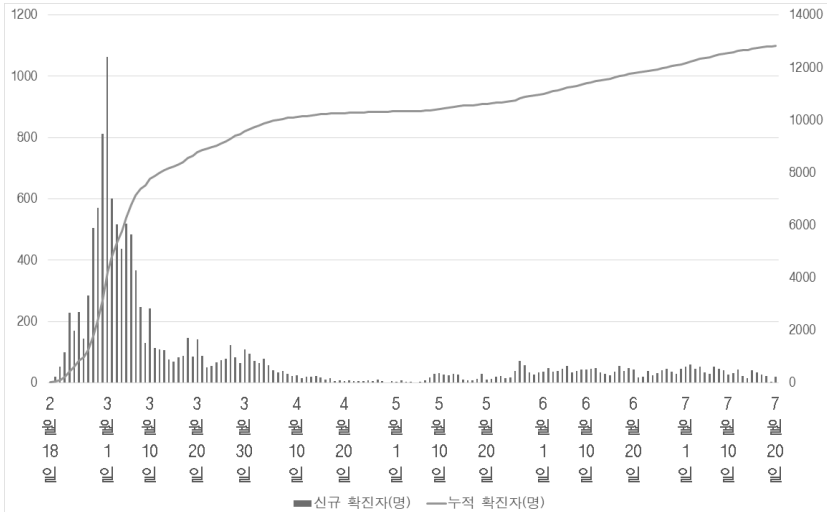
하지만, 31번 확진자가 2월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역학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 교회의 특이한 예배 방식(매우 밀집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었다. 우려대로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이들 후 일본은 공식적으로 지역사회 전파와 감염이 시작되었음을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 이때부터 대구와 인근 경북 지역의 병원, 양로원, 교회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지역사회 전파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의 감염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약 한 달 뒤인 3월 19일에는 8413명의 누적 확진자가 기록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4월 2일에는 누적 확진자 수 1만명을 넘어섰다(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2020). 이와 같은 폭발적 증가세로 인해 한때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상황이 나빠짐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고, 각 급 학교의 개학을 미루었으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가능한 경우 재택 근무와 화상 회의가 권장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었다. 또한, 마스크의 부족으로 정부는 개인별로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숫자를 제한하는 5부제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3월 중순 이후부터 4월을 지나면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전체 누적 확진자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점차 평평해지기 시작했다(〈그림 1〉). 또한, 완치자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사망자의 숫자 역시 크게 감소했다(질병관리본부 정례브리핑,

〈그림 1〉 2월 18일 이후 신규 확진자(막대 그래프, 왼쪽 축)와 누적 확진자(선 그래프, 오른쪽 축)의 숫자 및 추이(2월 18일 - 7월 20일)



주: 검역 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해외유입 사례는 제외하고 집계한 숫자(해외유입 사례를 집계하기 시작한 3월 15일 이후부터).
출처: 질병관리본부.

2020). 이후 한동안 신규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줄어들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 기초를 생활 속의 방역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간헐적으로 집단 감염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구 및 경북에서 시작된 것과 같은 대규모 감염 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⁹⁾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러 국가들이 코로나 19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대만, 베트남, 뉴질랜드 등은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로 한국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코로나 19에 ‘승리’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Guardian, 2020).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국경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거나 엄격한 락다운 명령을 통해 이동을 완전히 제

9) 2020년 8월 10일 기준.

한한 국가들이다. 즉, 한국의 사례는 사람 및 물자의 이동에 전면적인 제한 조치 없이도 코로나 19를 ‘관리’해 낸 매우 드문 사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의 방역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과 언론들이 다양한 기술의 사용을 그 배경으로 꼽고 있으며, 실제로 이 기술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별적 접근은 복잡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표피적 분석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즉, 코로나 19의 상황을 관리할 때 다양한 기술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메커니즘에 따라 종속적이고 일괄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의 방역 모델이 이 기술들을 작동시키는 메커니즘과 그 구체적 방식을 분석한다. 이는 안전장치를 주된 전략으로, 규율의 작동을 부가적인 전술로 사용하는 생명정치의 작동이다.

4. “추적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라”: 한국식 방역 모델에서 작동한 안전장치와 규율

1) 공간적 정보의 순환을 통해 ‘정상 분포’ 확보하기: 지리정보기술과 컴퓨팅 기술

흔히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기술을 한국 방역 모델의 핵심적인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곤 한다(Lucas, 2020; McCurry, 2020). 이 기술은 다양한 개인 정보에 기반해서 확진자와 확진 의심자의 공간적인 움직임을 추적한다. 이 기술은 지리정보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분석을 제공한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국토교통부·질병관리본부 공동 온라인 브리핑, 2020). 또한, 이 시스템은 지역감염 사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분석 도구도 제공한다.¹⁰⁾ 실제로 이 플랫폼은 확진자를 추적하고 그들을 관리하

10) 예를 들어 핫스팟 분석 또는 “예외적인 데이터 흐름” 또는 “이상한 움직임이나 이벤트”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을 통해서 31번 확진자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대구시 언론 브리핑, 2020) 실제 이동 경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은 일본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이 시스템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수집되는 자료의 범위는 최소화되며, 일본 외의 정부 부처는 해당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질병관리본부,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기술을 통한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에게 가해지는 국가(또는 공적) 권력의 예외적이고 초월적인 작동이다(Browne, 2015; Jefferson, 2017). 또한, Roberts(2019)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알고리즘적 빅데이터 기술은 “다음 대규모 전염병을 감지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감시적 실천의 핵심”(103)이 될 수 있다. 유사하게 Amooore(2018) 역시 클라우드 알고리즘이 귀납적 과정을 통해 공간적 패턴을 포함한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하는 ‘이성’에 따라 작동하고 그것을 통해 지리-정치적인 감시와 지배 행위가 가능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이 반드시 또는 단지 국가에 의한 감시 그 자체 또는 감시를 위한 국가 권력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이는 순환 과정을 통해 인구의 흐름과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작동한다. 즉,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지 국가가 시민들을 감시하고 그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확진자를 찾아내서 격리시키는 규율적 권력과 추가적 감염을 막기 위해 전체적 경향을 발견하고 해당 정보를 유통시키는 안전장치의 작동(또는 “순환의 문제”(Foucault, 2007: 64)이라는 것이다(Foucault, 2007: 61~62). 간단한 예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일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웹페이지를 통해 전부 게시되어 공유된다.¹¹⁾ 이는 이 기술의

(Roberts, 2019: 105; Amooore, 2018도 참고할 것)에 대한 분석.

11)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 제16조 3항, (보다 직접적으로는)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용 그 자체를 감시와 권력의 무제한적 확장으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형태상의 유사함이 반드시 동일한 내용이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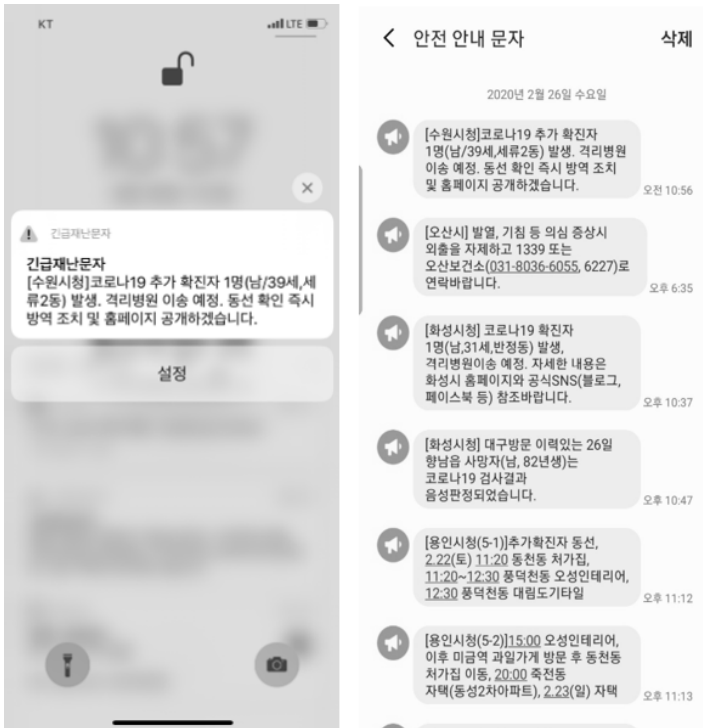
이러한 유명한 사례 외에도 이 절에서는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지리정보 기술과 컴퓨팅 기술이 어떻게 안전장치라는 주요 전략과 규율이라는 부가적인 전술하에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언급했듯이, 지리정보 기술과 그를 통한 지식의 생산은 일종의 진공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한다(Elwood and Leszczynski, 2013; Graham and Foster, 2016). 또한, Chun(2011)이 지적했듯이, 인구의 관리 및 생산, 안전장치 등은 자료의 수집 및 정렬 등의 측면에서 컴퓨팅 기술(인간과 기계로서의 컴퓨터 모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두 가지 유형의 기술은 공통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순환시킴으로써 확산시키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한다.

첫째, 많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듯이,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정보는 단지 각종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긴급 재난 정보와 문자 메시지(〈그림 2〉)를 통해서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된다. 이는 질본과 각 지방 정부가 확진자의 행적을 긴급 정보 또는 문자 메시지의 형태로 보내는 (또는 해당 웹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는 메시지) 간단한 기술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통해 해당 정보는 거의 대부분의 인구에 빠른 속도로 전파 및 공유된다.¹²⁾ 이와 같은 광범위한 정보의 전파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행적과 확진자의 행적을 비교하게 하는 전체적인 흐름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해당 메시지는 확진자의 행적과 공유되는 행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는 푸코가 말한 안전장치의 작동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앞에서 살펴보

12) 2018년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한국 국민의 90.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박근영, 2019), 성인으로 한정할 경우 95%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연합뉴스, 2019). 해당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들이 60~80%의 스마트폰 보급율을 보이며, 신흥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보다 더 낮은 보급율을 나타냈다.

〈그림 2〉 긴급재난문자(왼쪽)와 안전 안내 문자 메시지(오른쪽)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있듯이, 이는 개별 환자에 대한 세세한 접근이라기보다는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비확진자라는 '정상적인' 인구의 흐름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인구의 경향으로 만든 후, 그것에 대조되는 비정상적 흐름, 즉, 확진자를 그 속에서 찾아냄으로써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즉각적인 개별 방역 조치와 더불어 이 메시지는 공간적인 비정규성(확진자가 방문한 장소, 즉, '오염된 장소')을 제거했음을 알림으로써 공간적으로도 전체적인 정규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Amoore, 2018을 참고할 것). 즉, 이 기술은 정보에

대한 ‘순환의 문제’를 다룸으로써(정보를 순환시킴으로써) 안전장치를 작동시킨다. 추가적으로, 이 기술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드는 동시에 전염병 상황에서의 규율의 형태로도 일부 작동한다. 이러한 정보의 전파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얻는 동시에 개별 잠재적 바이러스 감염자를 검사받도록 함으로써 개별 확진자를 확인하고 격리시키는 출발점으로도 기능한다는 점에서 “해당 환자를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격리”(Foucault, 2007: 90)시키는 전염병 상황에서의 규율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둘째, 확진자와 관련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기반의 지도서비스 또한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순환의 문제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따른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지도’는 (특히 확산 초기에) 확진자들의 행적과 시간과 같은 다양한 시공간 정보를 제공했다(〈그림 3〉, 왼쪽). 이 지도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카카오 지도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도 API 및 목적지 검색 기능에 기반해서 제작되었으며, 이와 유사하게 ‘코로나있다’(〈그림 3〉, 오른쪽)는 사용자가 특정 위치를 입력하면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거리 순으로 정리해서 목록으로 제공해 준다. 이 두 사례는 상이한 형태의 서비스이지만, 정보 시스템인 동시에 광범위한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에 대한 특정 장소와 행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순환’시킴으로써, 긴급 재난 문자와 유사하게 공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장소(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를 찾아내고, 알리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제거(방역 및 방문의 회피)하여 공간상의 정상화를 낳는 안전장치의 전형으로 작동한다.

더불어, 이 사례는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작동하는 생명정치가 단순히 각급 정부 기관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개발자 본인이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듯이, ‘코로나바이러스 지도’는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 대학교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배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이다(TBS 뉴스 인터뷰). ‘코로나있다’ 서비스 역시 한 사기업이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배포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적 조치를 통한 안전장치 작동뿐 아니라 컴퓨팅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와 관련된 정보의 순환에 기여(Gabrys, 2016)하는 또 다른 (행위자에 의한) 안전장치의 작동 사례

〈그림 3〉 코로나바이러스 지도(왼쪽)와 코로나있다 서비스(오른쪽)



출처: coronamap.site, coronaita.com/#/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작동하는 생명정치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Foucault, 1980: 143)다. 즉, 이는 강압적인 주권 권력의 작동과 같이 절대적이고 일방적인 권력뿐 아니라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조차도) 보다 관계적이고 다방향적인 권력의 작동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권력은 “다른 여러 종류의 관계와 밀접하게 엮이기 때문에” “국지화되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고 적용된다”(Foucault, 1980).

2) “검사하고, 검사하고, 또 검사하라” 전략과 사물의 순환: 진단 키트의 대량 생산기술과 드라이브 및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 기술 역시 안전장치의 작동을 기본 전략으로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규모 전염병의 상황에서 안전장치는 발생한 문제를 가두거나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관리해서 경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문제를 소멸시킨다. 본 절에서는 진단 키트와 드라이브 및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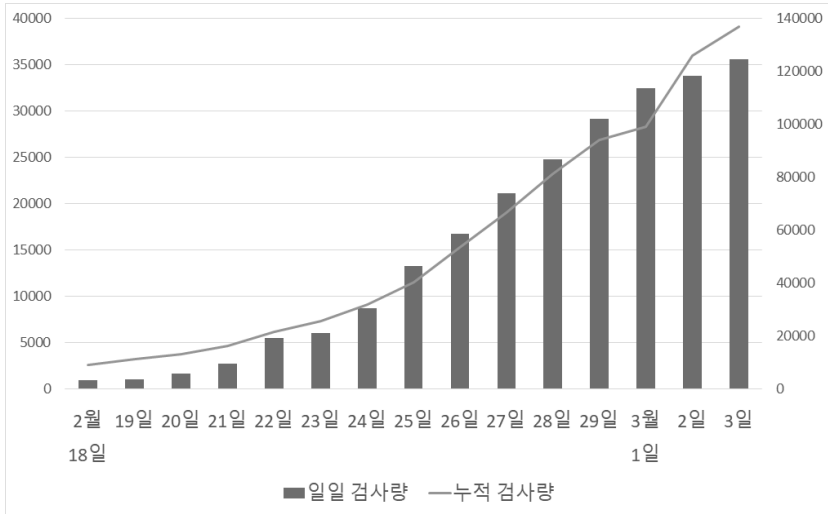
두 가지 사례를 논의한다. 이 두 기술의 핵심은 특정 일부 사람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 수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보다 정확하게는 진단 키트와 사람들을 순환시키고 만나게 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검사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이러한 기술들은 “사물들을 언제나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면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Foucault, 2007: 93)내는 메커니즘하에서 작동한다.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진단 키트의 생산과 빠른 보급이 갖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이것은 “검사하고, 검사하며, 또 검사하라” 전략(Ghebreyesus, 2020)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본은 2020년 1월 27일 코로나 19 진단 키트의 대량 생산을 위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긴급사용승인을 통해서 진단 키트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이와 같은 선제적인 조치는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특히 효력을 발휘했다. 이전까지 확진자와 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개별적인 추적, 격리 및 치료를 기본 전략으로 삼던 일본은 감염 경로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지역감염 사례의 증가가 가시화됨에 따라 이 시기부터 검사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한다. 실제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이후 피검사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그림 4).

역학 조사에 기반해서 확진자와 그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접촉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부는 2월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으며(중앙사고수습본부, 2020), 이에 따라 수백 명대에 머물던 일일 검사자의 수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수만 명대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개별 환자의 동선 추적 보다는, 감염가능시기 접촉자를 신속히 확인”(질병관리본부, 2020) 하는 전략으로 선회함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의 수정에서 안전장치의 작동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인 확진자 또는 확진 의심자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 검사의 양 자체를 대폭 확대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하는 방식을

〈그림 4〉 2월 18일 이후 일일 검사자의 숫자(막대 그래프, 왼쪽 축)와 누적 검사자의 숫자(선 그래프, 오른쪽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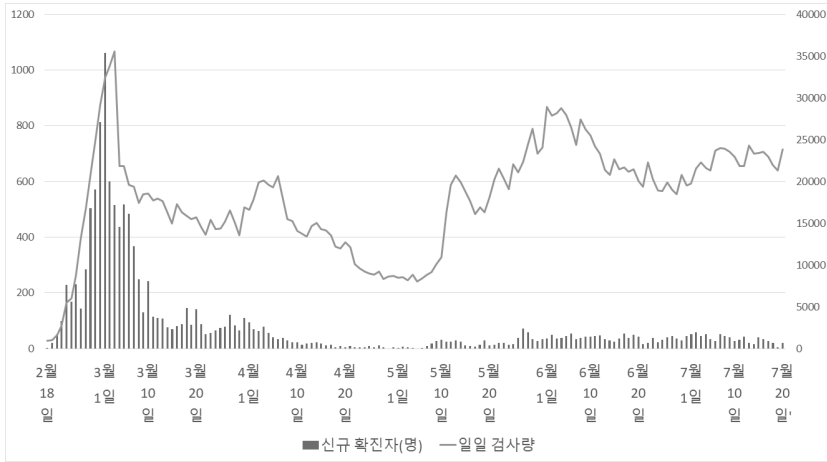


출처: 질병관리본부.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환자의 동선 추적 보다 감염이 가능한 시기와 그 접촉자에 집중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확진자)이 관계된 다른 주변의 요인들을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의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바이러스가 확대되는 상황을 위해 준비되었던 대량의 진단 키트는 이와 같은 안전장치의 작동에 따라 개별 확진자가 아닌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순환되기 시작했다. 추가적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시작된 간헐적 집단 감염에 대해서도 대규모 검사를 원칙으로 하는 진단 키트의 안전장치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그림 5〉). 그리고 이 기술은 접촉자 추적 기술과 함께 작동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확진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대량 검사 전략을 통해서 일본은 지역사회 전파의 맥락에서 바이러스가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퍼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월 24일 정례브리핑부터 일본은 전국 각 지역의 확진자 수와 그 확진자들이 어떠한 접

<그림 5> 신규 확진자의 숫자(막대 그래프, 왼쪽 축)와 일일 검사량(선 그래프, 오른쪽 축) (2월 18일 - 7월 20일)



출처: 질병관리본부.

축 경로로 감염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 2020). 이처럼 대규모 검사 결과를 통해서 광범위한 인구 집단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분포는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는 구체적인 방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정부는 “사물들”(Foucault, 2007: 96)을 재배치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정부는 2월 21일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방역 및 지원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담당 의료기관의 지정과 병상 확보, 의료 인력에 대한 증원, 의료 기구, 장비, 물품을 해당 지역으로 집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 2020)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이어서 3월 13일 대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제도적 지원 장치를 해당 지역에 집중시켰다. 즉, 광범위한 검사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안전장치의 작동을 요약해 주는 “일련의 분석

〈그림 6〉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위)와 워킹 스루 선별 진료소(아래)



출처: 경남신문, YTN.

과 특수한 배치”(Foucault, 2007: 69)를 잘 보여준다.

드라이브 및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그림 6〉) 역시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다. 이 또한 대규모 검사 원칙의 일부부분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안전장치의 작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는 “검사받아야 하는 의심 사례 또는 증상을 보이는 사

레들이 증가하는 것”(Kwon et al., 2020: 1)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로서, 두 가지 두드러지는 장점을 갖는다. 첫째, 검사자가 피검사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둘째, 피검사자의 차량을 검체 채취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체 채취실의 환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 즉, 이 기술은 안전하고 빠른 검사를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는 10분 당 한 명씩 검사할 수 있고, 이는 기존의 방식보다 3배 빨라진 방식이다(Kwon et al., 2020)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보다 더 빠른 검사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이는 3분당 한 명씩 검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들의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방식보다 7배 더 많은 수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 이 기술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인 빠른 검사 속도는 위의 진단 키트 기술과 마찬가지로(또는 부가적으로) 더 많은 인구를 해당 기술과 만나도록 순환시키고 배치함으로써 검사를 더 많은 인구로 확대시키는 안전장치 작동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의 방역 모델에서 이와 같은 의료 기술들은 안전장치의 원칙하에서 작동한다. 이는 바이러스의 감염이라는 사건을 개별 사례로 접근하여 제한하고 가두는 방식으로 다루기보다 인구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경향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 접근법은 사물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순환시키고 이동시키고 배치함으로써 해당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세계의 조건을 조합해 내며, 진단 키트 기술과 드라이브, 워크 스루 선별 진료소 기술은 진단 키트를 인구 속으로 혹은 그 반대로 순환(또는 배치)시킴으로써 더 많은 검사라는 목표를 달성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이 규율적 조치와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얻어진 검사 결과는 곧바로 바이러스에 대한 의료적 접근으로서 개별적인 환자들을 격리하고 치료하는 규율적 메커니즘(Foucault, 2007: 62)을 작동시킨다. 확진 판정을 받은 피검사자는 곧바로 음압병실로 격리 조치되며 치료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바이러스

의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어서 해당 개별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머물렀던 개별 장소에 대한 규율적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지리정보 및 컴퓨팅 기술을 통해 해당 정보가 유통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의료 기술면에서도 한국의 방역 모델은 전체적으로 안전장치에 따르고, 국지적으로 규율적 메커니즘을 함께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5. 결론

본 논문은 한국의 방역 모델이 어떻게 코로나 19로 촉발된 대규모 전염병의 위기 상황에 대처했는지 안전장치와 규율의 작동을 통해 살펴보았다. ‘3T 원칙’의 작동에서 필수적인 추적과 검사를 위해서 이 모델은 안전장치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 한국의 방역 모델은 제한하거나 걸어 잠그거나 차단하지 않았다. 이는 오히려 자유롭게 순환시키고, 움직임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그리고 지리공간적 기술 및 컴퓨팅 기술(코로나바이러스 지도, 긴급 재난 알림)과 의료기술(대규모 진단 키트, 드라이브 및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은 이러한 메커니즘의 대원칙하에서 인구를 대상으로 정보를 순환시키고,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낚아서 서로 만나게 하는(또는 만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방역 모델은 강제적으로 국경을 닫아 걸어 국민들에게 어떠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는 주권 권력의 강압적인 조치 없이 (또는 거의 없이) 안전장치의 메커니즘에 따라 전염병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푸코가 강조했듯이, 권력의 작동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한국 방역 모델의 경우 안전장치를 대전략으로 사용하지만, 국지적으로는 안전장치를 통해 파악된 비정상적인 경향들을 개별적으로 격리하고 치료하는 전염병에 대한 규율적 권력과의 관련된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방역 모델은 안전장치와 규율이 함께 작동하는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이다.

이러한 해석은 각각의 기술들이 그것이 착근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따라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단순히 개별적인 기술과 그 효과에 집중하는 기술 중심적 접근 대신, (과학)기술을 보다 넓은 맥락과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긴급 상황(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현실”(Foucault, 2007: 47)과 관련된 권력은 감시 기술의 사용이 권위주의적 정부의 부활로 이어진다고거나 이것이 ‘덜 자유로운’ 사회, 문화와 관련된다는 식의 논의와 달리, 인구의 안전과 같은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규모 전염병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조차도 ‘캠프’나 ‘감시 사회’는 무조건적인 혹은 보편적인 결과가 아니다. 실제 현실 세계에서 기술과 관련해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보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다양성을 포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푸코가 주장했던 근대적 생명정치가 광범위한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작동한다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를 제공해 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의 정치-역학 모델은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제시한 안전장치와 규율의 생명정치적 전염병 대응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며, 그것이 전염병이라는 현실의 위기 상황을 다루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와 같은 관점은 (앞으로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지켜보아야 하지만) 또 다른 대규모 전염병의 상황을 위한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의 형성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즉, 이는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전염병의 상황에서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작동시켜야 하는지, ‘사물’들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배치하고,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모델은 생활을 파괴하고 국경을 닫아서는 공간적 강제조치 없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실천한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보다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간적인 차단 조치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서로를 단절시키는 주권 권력의 대처 방식은 설사 그것이 프라이버시는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형태의 기본 인권(생명권, 건강권)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 강압적인 공간적 제한조치

를 취했던 국가에서 발생하는 락다운 반대 시위, 대규모 경기 침체, 성급하고 무모한 완화 조치 등을 목격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백신이 개발되거나 상당한 수준의 집단면역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보다 복잡한 형태의 생명정치적 ‘정치-역학’ 모델에 대한 이해나 고찰 없이 또 다른 대규모 전염병의 상황에서 생명을 지켜내고 인간 사회를 ‘다시 여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며, 대규모 전염병 이전의 일상적 삶은 정말로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될 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거대한 푸코의 논의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푸코의 작업 역시 그러하다는 점(Legg 2005; Jessop 2011)은 ‘코로나 19-푸코 연구’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심사자들이 지적했듯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담론의 생산과 유통, 그에 따른 시민들의 (비)자발적 참여, (사회적) 규율의 작동은 ‘코로나 19-푸코연구’의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본 논문이 다루지 못한 자유(주의)와 통치성의 관계, 품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자가격리 및 기타 관련 방역 지침의 준수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몇몇 나라에서 마스크 착용이 정치 담론화되고 여기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논의가 개입되는 측면에서 (내면화된) 통치성과 그에 따른 품행의 차이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규율에 대한 푸코의 논의(예를 들어, ‘정상적’이지 않은 몸의 정의와 그에 대한 낙인 및 교정)를 통해 확진자나 (이태원 클럽의 사례에서 나타난)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기피, 낮은 관용의 정도를 살펴보는 것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주제이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원고접수일: 2020.06.22

1차 심사완료일: 2020.07.13

1차 수정완료일: 2020.07.23

2차 심사완료일: 2020.08.13

게재확정일: 2020.08.13

최종원고접수일: 2020.11.21

Abstract

The Biopolitics of COVID-19:
Understanding South Korea's Approach to COVID-19 as a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through the Exercises of Apparatuses of
Security and Discipline

Park, Weejun

This paper analyses South Korea's response to COVID-19 in the concept of Foucauldian biopolitics. South Korea's model is managing this pandemic situation without any extensive spatial restrictions, such as lockdown and blocking borders, whereas most countries rely on them. This paper understands this model as a biopolitical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which takes the apparatuses of security, focusing on the 'problem of circulation', as a global and primary strategy, rather than oppressive orders, and locally utilizes disciplinary exercises. Also, this paper argues that various technologies which are regarded as instrumental in this model, such as geospatial technology, computational technology, and medical technology, are jointly exercised under this mechanism. This approach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the 'politico-epidemiological' model that is actually exercised in the pandemic situation,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 individual parts of the model.

Keywords: apparatuses of security, discipline, problem of circulation, biopolitics, COVID-19, technologies

참고문헌

- 경남신문. 2020.3.2. “검사까지 10분 소요 …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복직”. [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20595&gubun=\(검색일: 2020.05.01.\)](http://m.knnews.co.kr/mView.php?idxno=1320595&gubun=(검색일: 2020.05.01.))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03.25.,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tpage=1&id=95083710\(검색일: 2020.04.23.\)](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tpage=1&id=95083710(검색일: 2020.04.23.))
- 국토교통부-질병관리본부 공동 외신브리핑. 2020.4.9. “MOLIT & KCDC Online Briefing on COVID-19 Smart Management System”. [https://www.youtube.com/watch?v=C9o_HGN6v8E\(검색일: 2020.04.23.\)](https://www.youtube.com/watch?v=C9o_HGN6v8E(검색일: 2020.04.23.))
- 김강기명. 2020.4.7. “유럽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수 없는 것”. [https://firenzedt.com/?p=5909\(검색일: 2020.04.10., 원문은 https://www.merkur-zeitschrift.de/2020/04/01/was-europa-von-suedkorea-nicht-lernen-kann/, 독일어.\)](https://firenzedt.com/?p=5909(검색일: 2020.04.10., 원문은 https://www.merkur-zeitschrift.de/2020/04/01/was-europa-von-suedkorea-nicht-lernen-kann/, 독일어.))
- 김동완. 2013. 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공간과 사회》. 23권 2호(통권 44권), 131-164쪽.
- 대구시 언론 브리핑. 2020.4.13. [http://www.daegu.go.kr/dgcontent/index.do?menu_id=00936590&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2098\(검색일: 2020.04.25., 위의 링크가 주소창에 제공되나 실제로 접속되지 않으므로 대구시 브리핑 게시판에서 4월 13일 게시물을 찾아서 접근할 것\)](http://www.daegu.go.kr/dgcontent/index.do?menu_id=00936590&menu_link=/icms/bbs/selectBoardArticle.do&bbsId=BBS_02098(검색일: 2020.04.25., 위의 링크가 주소창에 제공되나 실제로 접속되지 않으므로 대구시 브리핑 게시판에서 4월 13일 게시물을 찾아서 접근할 것))
- 박근영. 2019.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현황”. [https://kess.kedi.re.kr/post/6684806?itemCode=03&menuId=m_02_03_03&fbclid=IwAR1cJpYJJ-gjyfqOALZP7tva7c2kpbGjaatUIaAs0Sy5zy3n6MqcltMocBs\(검색일: 2020.05.17.\)](https://kess.kedi.re.kr/post/6684806?itemCode=03&menuId=m_02_03_03&fbclid=IwAR1cJpYJJ-gjyfqOALZP7tva7c2kpbGjaatUIaAs0Sy5zy3n6MqcltMocBs(검색일: 2020.05.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0.3.23.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9&CONT_SEQ=353682\(검색일: 2020.04.28.\)](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9&CONT_SEQ=353682(검색일: 2020.04.28.))
- 서동진. 2009. 신자유주의 분석가로서의 푸코: 미셸 푸코의 통치성과 반정치적 정치의 회로. 《문화과학》. 57권. 315~335쪽.
- YTN. 2020.3.17. “‘드라이브 스루’ 이어 등장한 1인용 ‘워킹 스루’ 진료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검색일: 2020.05.01.\)](https://www.ytn.co.kr/_ln/0103_202003171150067171.(검색일: 2020.05.01.))
- 연합뉴스. 2019.2.6. “한국 스마트폰 보유율 95% … 세계 1위”.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6008200009\(검색일: 2020.05.17.\)](https://www.yna.co.kr/view/AKR20190206008200009(검색일: 2020.05.17.))
- 윤재왕. 2016. 예외상태와 주권의 역설: 아감벤의 칼 슈미트 해석에 대한 비판. 《강원법학》. 47권. 337-404쪽.
- 임동근. 2008. 국가와 통치성. 《문화과학》. 54권. 13-27쪽.
- 질병관리본부.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자료[2020.1.24(글번호 3613번)~2020년 7월 22일(글번호 4096번)]. <https://www.cdc.go.kr/board/>

- board.es?mid=a2050100000&bid=0015(검색일: 2020.07.22).
- 최병두. 2015.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공간과 사회>. 25권 3호(통권 53호). 173-192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2020.2.21.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7&CONT_SEQ=353024&SEARCHKEY=TITLE&SEARCHVALUE=%EC%BD%94%EB%A1%9C%EB%82%98(검색일: 2020.05.0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5.3.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contSeq=354337>(검색일: 2020.05.04).
- TBS뉴스, 2020.2.6. “코로나맵 개발자 “누적조회 천만 … 제보, 데이터 사실유무 판단해 업로드”,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seq_800=0010376419(검색일: 2020.04.30).
- 한겨레, 2020.6.15. “구제역과 닮은 코로나, 회피할 건가 참여할 건가”: [에니멀피플] 포스트 코로나19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묻다 5.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49350.html(검색일: 2020.06.15).

Agamben, G.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5. *State of Excep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_____. 2020.02.26.(2020a). “The Invention of an Epidemic”. in M. Foucault et al.. *Coronavirus and Philosopher*. <https://www.journal-psychoanalysis.eu/coronavirus-and-philosophers/>(검색일: 2020.04.13., (원문은 <https://www.quodlibet.it/giorgio-agamben-l-invenzione-di-un-epidemia>, 이탈리아어))

_____. 2020.03.17.(2020b). “Clarifications”. <https://itself.blog/2020/03/17/giorgio-agamben-clarifications/>(검색일: 2020.04.13., 원문은 <https://www.quodlibet.it/giorgio-agamben-chiarimenti>, 이탈리아어)

Amnesty International. 2020. “COVID-19, Surveillance and the Threat to Your Rights”.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20/04/covid-19-surveillance-threat-to-your-rights/>(검색일 2020.04.23).

Amore, L. 2013. *The Politics of Possibility: Risk and Security beyond Probabil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_____. 2018. Cloud Geographies: Computing, Data, sovereignt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42. No. 1. pp. 4~24.

Ash, J., R. Kitchin. and A. Leszczynski. 2018. “Digital Turn, Digital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42. No. 1. pp. 25~43.

- Benjamin, R. 2019. *Race after Technology: Abolitionist Tools for the New Jim Code*. Cambridge and Medford: Polity Press.
- Berg, A. 2020.03.23. "Giorgio Agamben's Coronavirus Cluelessness". <https://www.chronicle.com/article/Giorgio-Agamben-s/248306>(검색일: 2020. 04. 26).
- Bischoff, P. 2019. "Surveillance Camera Statistics: Which Cities Have the Most CCTV Cameras?". <https://www.comparitech.com/vpn-privacy/the-worlds-most-surveilled-cities/>(검색일: 2020.04.15., 해당 자료 전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bKBFiVXNzrgtW95j66Tpcj2OYmL-Gj-mKxvVvEN8aI8/edit#gid=979494433>).
- Boukalas, C. 2014. No Exceptions: Authoritarian Statism. Agamben, Poulantzas and Homeland Security. *Critical Studies on Terrorism*. Vol. 7. No. 1. pp. 112-130.
- Brennan, S. 2020.04.02. "The Biopolitics of Covid-19". <https://sluggerotoole.com/2020/04/02/the-biopolitics-of-covid-19/>(검색일: 2020.04.15).
- Browne, S. 2015. *Dark Matters: On the Surveillance of Blacknes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Cho, J. 2020.02.27. "Why South Korea may have more coronavirus cases than the US",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massive-coronavirus-testing-program-south-korea-underscores-nimble/story?id=69226222>(검색일: 2020.04.18).
- Chun, W. H. K. 2011. *Programmed Visions: Software and Memory*, Cambridge: MIT Press.
- Crampton, J. W. and S. Elden (eds.). 2007. *Space, Knowledge and Power: Foucault and Geography*. Aldershot and Burlington: Ashgate.
- Diken, B. and B. L. Carsten. 2005. *The Culture of Exception: Sociology Facing the Camp*. New York: Routledge.
- Doberstyn, B. 2006. "What Did We Learn from SARS?" in World Health Organization (ed.). *SARS: How a Global Epidemic was Stopped*.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Elden, S. 2007. Rethinking Governmentality. *Political Geography*. Vol. 26. No. 1. pp. 29-33.
- Elwood, S. and A. Leszczynski. 2013. New Spatial Media, New Knowledge Politic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Vol. 38. pp. 544-559.
- Findlay, A. M. 2003. Population Geographies for the 21st Century.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Vol. 119. pp. 117-190.
- Foucault, M. 1973[2003].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A. Sheridan (trans.). New York: Routledge.
- _____. 1977[1995].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A. Sheridan (trans.).

- New York: Vintage Books.
- _____. 1978[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I: An Introduction*. R. Hurley (trans.). New York: Pantheon Books.
- _____.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C. Gordon (ed.). C. Gordon, L. Marshall, J. Mepham, K. Soper (trans.). New York: Pantheon.
- _____.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5-1976*. M. Bertani, A. Fontana (eds.). D. Macey (trans.). New York: Picador.
- _____. 2007.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7-1978*. M. Senellart (ed.). G. Burchell (trans.). London: Palgrave Macmillan. (오토르망 움김. 2011.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7-78년』. 난장)
- _____.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M. Senellart (ed.). G. Burchell (trans.). London: Palgrave Macmillan. (오토르망 움김. 2012.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 1978-79년』. 난장)
- Foucault, M. and D. Trombadori. 1991. *Remarks on Marx: Conversations with Duccio Trombadori*. R. J. Goldstein, J. Cascaito (trans.). New York: Semiotext(e). (이승철 움김. 2010. 『푸코의 맑스: 듯치오 트롬바도리와의 대담』. 갈무리)
- Gabrys, J. 2016. *Program Earth: Environmental Sensing Technology and the Making of a Computational Planet*.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Ghebreyesus, T. A. 2020.03.15. in WHO News Conference. <https://www.bbc.com/news/av/world-51916707/who-head-our-key-message-is-test-test>, <https://www.youtube.com/watch?v=3GqhApWmFtA>(검색일: 2020.04.28).
- Gilmore, R. W. 2007. *Golden Gulag: Prisons, Surplus, Crisis, and Opposition in Globalizing California*.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uardian. 2020.04.27. "Ardern: New Zealand Has 'Won Battle' against Community Transmission of Covid-1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apr/27/new-zealand-prepares-to-lift-strict-lockdown-after-eliminating-coronavirus>(검색일: 2020.05.01).
- Jefferson, B. J. 2017. Digitize and Punish: Computerized Crime Mapping and Racialized Carceral Power in Chicago.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35. No. 5. pp. 775-796.
- Jessop, B. 2011 Constituting Another Foucault Effect: Foucault on States and Statecraft. U. Bröckling, S. Krasmann and T. Lemke(eds.). *Governmentality: Current Issues and Future Challenges*. New York: Routledge.
- _____. 2007. From Micro-powers to Governmentality: Foucault's Work on Statehood,

- State Formation, Statecraft and State Power. *Political Geography*. Vol. 26. No. 1. pp. 34~40.
- Kluth, A. 2020.04.22. "If We Must Build a Surveillance State, Let's Do It Properly: As We Develop New Apps to Track the Coronavirus, The Best Model Isn't the U.S., China, Germany or South Korea. It's Taiwan."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4-22/taiwan-offers-the-best-model-for-coronavirus-data-tracking>(검색일: 2020.04.28).
- Kwon, K. T. et al. 2020 Drive-through Screening Center for COVID-19: A Safe and Efficient Screening System against Massive Community Outbreak.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s*. Vol. 35. No. 11. pp.1~4.
- Lee, S.-O., N. Jan, and J. Wainwright. 2014, Agamben, Postcoloniality, and Sovereignty in South Korea. *Antipode*. Vol. 46. No. 3. pp. 650~668.
- Legg, S. 2005. Foucault's Population Geographies: Classifications, Biopolitics and Governmental Spac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1. pp. 137~156.
- Lemke, T. 2005. A Zone of Indistinction: A critique of Giorgio Agamben's Concept of Biopolitics. *Outlines. Critical Practice Studies*. Vol. 7. No. 1. pp. 3~13.
- _____. 2011. *Biopolitics: An Advanced Introductio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Logan, J. 2020.03.19. "How Different Societies React to Pandemics". <https://www.universityofcalifornia.edu/news/how-different-societies-react-pandemics>(검색일: 2020.05.02).
- Lucas, F. 2020.03.27. "5 Things Americans Should Know about South Korea's Handling of Coronavirus". <https://www.dailysignal.com/2020/03/27/5-things-americans-should-know-about-south-koreas-handling-of-coronavirus/>. (검색일: 2020.05.02.)
- McCurry, J. 2020.04.23. "Test, Trace, Contain: How South Korea Flattened Its Coronavirus Curv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apr/23/test-trace-contain-how-south-korea-flattened-its-coronavirus-curve>. (검색일: 2020.04.18.)
- Nancy, J.-L. 2020.02.27.(2020). "Viral Exception". in *M. Foucault et al.* Coronavirus and Philosopher. <https://www.journal-psychoanalysis.eu/coronavirus-and-philosophers/>(검색일: 2020.04.13., 원문은 <https://antinomie.it/index.php/2020/02/27/eccessione-virale/>, 이탈리아어).
- Park, S. N. 2020.04.02. "Confucianism Isn't Helping Beat the Coronavirus" <https://foreignpolicy.com/2020/04/02/confucianism-south-korea-coronavirus-testing-cultural-trope-orientalism/>(검색일: 2020.05.02).
- Philo, C. 2005. Sex, Life, Death, Geography: Fragmentary Remarks Inspired by 'Foucault's

- Population Geographies'. *Population, Space and Place*. Vol. 11. pp. 325-333.
- Roberts, S. L. 2019. Big Data, Algorithmic Governmentality and the Regulation of Pandemic Risk.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tion*. Vol. 10. No. 1. pp. 94-115.
- Rose, N. and Miller, P. 1992. Political Power beyond the State: Problematics of Governmen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 43. No. 2. pp. 173-205.
- Ryu, S. *et al.* 2020. Effe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on Transmission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outh Korea, 2020.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Vol. 26. No. 10. DOI: 10.3201/eid2610.201886.
- Sonn, J. W. 2020.03.19. "Coronavirus: South Korea's Success in Controlling Disease is due to Its Acceptance of Surveillance".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south-koreas-success-in-controlling-disease-is-due-to-its-acceptance-of-surveillance-134068>(검색일: 2020.04.18).
- Sonn, J. W. and J. Lee. 2020. Smart City as Time-Space Cartographer: South Korean Strategy for COVID-19 Control and Its Implications for Democratic Control of Data. *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 Vol. 61. No. 4. pp. 1-5.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12.09. "China the Most Surveilled Nation? The US Has the Largest Number of CCTV Cameras per Capita". <https://www.scmp.com/tech/gear/article/3040974/china-most-surveilled-nation-us-has-largest-number-cctv-cameras-capita>(검색일: 2020.04.15).
- Sotiris, P. 2020.03.20. Against Agamben: Is a Democratic Biopolitics Possible? <https://www.viewpointmag.com/2020/03/20/against-agamben-democratic-biopolitics/> (검색일: 2020.03.26).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2. "T3: Test. Treat. Track initiative". https://www.who.int/malaria/areas/test_treat_track/en/(검색일: 2020.04.30), https://www.who.int/malaria/publications/atoz/test_treat_track_brochure.pdf?ua=1(검색일: 2020.12.04).